

지역 매아리

고창경찰서, 비행예방 활동 '청소년은 우리가 지킨다'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오는 21일까지 2018년 수능 전·후 교육청 합동 청소년 탈선예방 선도·보호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선도·보호 활동은 여성청소년계장 및 학교전담경찰관 장하사, 교사, 패트롤 팀 등 15명이 참석하였으며, 수능(11.15) 전·후 우려되는 청소년 탈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해환경 계도·단속 및 선도 활동 강화 등 선도·보호를 목적으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15일 오후 6시부터 실시되는 캠페인에서는 거리 행진을 하면서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유해업소인 편의점, 슈퍼마켓, 호프집, P방 등을 찾아 업주 및 종업원에게 청소년들이 부정적으로 행사하기 쉬운 공문서 위·변조 및 부정행사, 타인주민등록증 부정사용,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 신분증 위·변조, 부정행사 관련 처벌 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청소년의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여성청소년계는 청소년 비행예방(흡연, 음주 등) 특별순찰구역 장소 4곳을 설정하여 플래카드를 게시 등 비행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음주·흡연 등 비행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선도 및 보호 활동을 하고 유해 환경 종류와 처벌 규정이 담긴 전단지 제작하여 물티슈, 형광펜, 볼펜 등을 전달하며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나서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동절기 대비 불법소각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주택가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및 공사장 폐목재 소각행위를 12월 14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1개반 5명의 단속반과 음면동별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불법소각 신고·발견지역과 화재 위험지역 등의 현상순찰 강화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매연, 악취를 발생시키는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나선다.

중점단속 내용으로는 주택가 화목보일러 불법연료 사용, 가정 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소각,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과 건설공사장 등에서 쓰레기 감량을 위한 불법소각행위와 재활용품 혼합배출, 규격봉투 미사용 불법투기 행위이다. 한편, 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법소각 행위현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정하고, 12월 말까지 현장 지도와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농식품 문화 이כל '명인' 선정

박앵두(엿류), 안문규(식초류), 김효심(장류) 씨 등 3명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농식품분야의 명인을 발굴하여 고창 농식품의 명품화와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함으로써 고창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고창군 농식품 명인'을 선정했다. 군은 지난 14일 군청 회의실에서 고창군 명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박앵두(엿류), 안문규(식초류), 김효심(장류)씨 등 3인을 고창군 농식품 명인으로 최종 선정했다.

올해 처음 실시한 '고창군 농식품 명인'은 주소와 영업장 소재지가 고창군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역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해당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경력력과

차별성을 갖춘 군민의 신청을 받았다. 군은 총 18명의 신청자 가운데 농식품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학계와 일반 전문가 4명을 실무위원으로 구성, 모든 영업장을 찾아가 엄격한 현장심사를 거쳐 1차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고창군 명인 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장평가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사)한국약식음식연구원 조현주 원장은 "현장 심사를 하는동안 현장에서 듣고 보고 느낀바가 많았다"며 "묵묵히 지역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명인들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정된 명인에게는 명인 인증서 및 인증패 교부는 물론, 각종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우선권 부여,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전농식품 명인 신청 지원, 맛 집 지도 등재 및 추천,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고창군 명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인 정토진 부군수는 "고창군이 농업생명식품산업을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역 농식품 분야 인재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선정된 모든 명인들이 고창을 대표하는 얼굴인 만큼 앞으로 고창군 홍보와 농식품 브랜드 향상을 위해 적극 활동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대문화의 가치 한 걸음 더 확장해 나가는 기회가 될 것"

정읍시, '백제 중방문화권의 새로운 인식' 학술대회 열어

정읍시(시장 유진섭)에서는 15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백제 중방문화권의 새로운 인식'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전북역사 재조명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백제문화유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전북문화재연구원 김규정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백제 중방성의 설치와 의미(정재운, 김근영-공주대), 백제 중방성의 축조와 통치체제(김영심, 한성백제박물관), 백제 중방성 출토 '상향상형' 명 인각와에 대한 고찰(이대운, 원

광대), 백제 중방성과 주변 유적과의 관계(김상규, 전북문화재연구원) 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하여 토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원광대학교 최완규 교수는 백제 중방문화권의 새로운 인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종합토론에서 중방문화권이 당초 고부지역으로 국한되었으나 최근 고창, 부안, 김제까지 아우르는 전라북도 서남부지역으로 확대 해석하는 추세라고 발표함으로써 큰 관심을 받았다.

이날 발표에서는 고부에 있는 고사부리성이 중방의 치소였음을 거듭 강조하고, 은선리와 도계리고분군, 지사리고분군, 운학리고분군, 금시동

산성, 두승산성, 은선리산성, 우덕리산성 등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다양한 백제유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방문화권에 산재하고 있는 이러한 백제유적은 최근 전북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움직임 속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곳으로 전북지역 고대문화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번 학술대회를 기회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지방행정의 효시인 백제 중방성과 그 문화권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백제 중방문화권'이라는 고대문화의 가치를 한 걸음 더 확장해 나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만추홍엽, 독서삼매경 잡념을 내려놓다

정읍 충무공원 붉은 단풍꽃 활짝 늦가을 서정 '가득'

지난 14일 오후 정읍시 청사 옆 충무공원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노랗게 물든 잔디와 사시사철 푸른 잔디나무와 측백나무를 배경으로 붉은 단풍꽃이 활짝 피어 만추의 서정을 한껏 끌어 올린 하루. 정취에 취한 한 시민이 의자에 앉아 독서삼매경에 빠져 있는 모습이 마음의 여유를 부른다. 한편 충무공원 내에는 충무공 이순신의 사당인 충렬사(忠烈祠)가 있어 충렬사공원이라고도

불린다. 충무공은 1589년(선조 22) 12월 45세의 나이로 정읍현감에 부임하여 1년 4개월 동안 절 푸른 잔디나무와 측백나무를 배경으로 붉은 단풍꽃이 활짝 피어 만추의 서정을 한껏 끌어 올린 하루. 정취에 취한 한 시민이 의자에 앉아 독서삼매경에 빠져 있는 모습이 마음의 여유를 부른다. 한편 충무공원 내에는 충무공 이순신의 사당인 충렬사(忠烈祠)가 있어 충렬사공원이라고도

불린다. 충무공은 1589년(선조 22) 12월 45세의 나이로 정읍현감에 부임하여 1년 4개월 동안 절 푸른 잔디나무와 측백나무를 배경으로 붉은 단풍꽃이 활짝 피어 만추의 서정을 한껏 끌어 올린 하루. 정취에 취한 한 시민이 의자에 앉아 독서삼매경에 빠져 있는 모습이 마음의 여유를 부른다. 한편 충무공원 내에는 충무공 이순신의 사당인 충렬사(忠烈祠)가 있어 충렬사공원이라고도



고창고인돌마라톤 동호회가 오는 18일 고창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제16회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와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알리기 위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창고인돌마라톤 대회 모두 함께해요'

18일 고창공설운동장서 열려

고창고인돌마라톤 동호회(회장 김정수)가 오는 18일 고창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제16회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와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창고인돌마라톤 동호회는 지난 11일 순천남승물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삼한시대 고창지역에 있던 모로비리국에서 왔음을 알리는 호피무늬 옷차림과 긴머리, 두건, 화살 등으로 치장하고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깃발을 들고 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관광객과 달리기들에게 고창을 알려주는 길을 펼쳤다.

한반도 내 거대세력 형성과 지역 내

각종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는 유물로 증명되듯 한·중, 한·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국제도시로서 한반도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을 꽃 피운 모로비리국에 대한 교육과 이해를 바탕으로 그동안 각종 대회 등에서 이를 재현한 차림으로 '한반도 첫 수도 고창'과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를 널리 알렸다.

고창고인돌마라톤 동호회 김정수 회장은 "회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원시인 복장을 하고 고창의 농특산물과 지역 축제, 세계유산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며 "고인돌마라톤대회의 성공 개최와 고창알림이 앞으로 지역을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그동안 흘린 땀방울과 노고에 큰 박수를"

부안군 나누미농장학재단 운영위원회, 수험생 격려·응원

부안군 나누미농장학재단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옥길)는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안군 시험장인 부안고등학교와 부안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안군 응시자는 총 410명으로 남학생은 부안고등학교에서 206명, 여학생은 부안여자고등학교에서 204명이 시험을 치렀다. 김옥길 나누미농장학재단 운영위원장은 "이날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그동안 흘린 땀방울과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부안을 위해 힘을 보탬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이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이사장은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 최고의 결



과를 가져오길 바란다"며 "수험기간 동안 함께 고생하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 나누미농장학재단은 지역의 학생들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부안군민, 향우, 부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후원금이 모여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